

늦가을 정취 가득한 해안과 포구를 찾아서

그리움이 쌓이는 11월! 섬과 섬 사이를 흐르는 푸른 물결엔 하늘빛이 반사되고, 해안가의 갈대밭에서는 철새들의 군무를 춘다.
아름다운 낙조가 있는 늦가을의 바다로 호젓한 여행을 떠나보자!



흥미로운 이벤트와 따뜻한 인심이 가득한 보물섬 ‘경남 남해’

높이 681m의 남해군 금산에 자리잡은 금산 보리암은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지은 고찰로 해수관음상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적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3대 기도처 중 하나이다. 특히 보리암에서 바라보는 남해의 일출은 새벽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금산 38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금산에는 볼거리가 많다. 정상에서 펼쳐지는 산자락과 남해 바다를 바라보는 제1경을 필두로 각자 독특한 멋을 자랑하는 38경들이 준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 중에 단연 압권이 마지막 38경인 보리암에서의 일출이다.

설천면의 노량 지역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승첩지이자, 충무공이 전사한 역사적인 장소. 여기에는 충무공의 시신을 잠시 모셔 두었던 충렬사가 있고, 임진왜란 당시 사용한 거북선이 그대로 재현돼 있다. 이곳 유람선 선착장에는 유람선이 여러 척 있다. 유람선을 타고 관음포 충무공 전몰유치지, 인근 하동군의 하동화력과 광양의 제철소 등도 바라볼 수 있다. 남해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낙조 역시 전국에서 보기 힘든 장관이다.

역사의 땅 노량에서 펼쳐지는 이충무공노량해전승첩제

노량 앞바다에서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이충무공노량해전승첩제가 열린다. 승첩제의 가장 큰 볼거리이자 최대의 이벤트인 노량해전 재현은 11월 20일(토)에 거북선과 왜선, 그리고 중국선으로 치장한 선박 100여척이 동원돼 남해대교 아래에서 펼쳐진다. 대단했던 마지막 해전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눈을 떼지 못할 감격과 환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듯.

- ◎ 찾아가는 길 : 남해고속도로 하동IC → 남해 → 노량 / 금산 보리암
- ◎ 주변 볼거리 : 물건방조어부림, 남해편백자연휴양림



강과 바다가 만나고 갈대와 철새가 장관을 이루는 ‘충남 서천’

신성리 갈대밭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갈대 7선의 하나로 꼽히는 장소. 그만큼 드넓은 밭에 너울거리는 갈대의 모습과 금강의 은빛 물결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사진작가들의 촬영장소로도 단연 인기 만점인 신성리 갈대밭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촬영장소로 더욱 유명해졌다. 가을이면 만발하는 갈대꽃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은갈색 빛을 띠며 가을 들녘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한다. 너비 200m, 길이 1km에 달하는 갈대밭은 사람의 키를 훨씬 뛰어넘는 높이 2~3m의 갈대가 장관을 이룬다. 또 가을부터 겨울까지 수천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와 일대 장관을 이룬다.

소백산면에서 발원하여 충북 남서부를 지나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는 금강은 충남 서천군 마서면과 전북 군산시 성산면의 사이에 위치한 금강하구둑 아래로 흐른다. 아름다운 금강 위로 충남과 전북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강하구둑인데, 인근지역에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바닷물의 역류를 막아 염해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기능만점의 금강하구둑은 또 하나 아름다운 경치로도 유명하다. 흔들리는 갈대밭 사이로 겨울이면 날아드는 철새들의 모습은 한없이 아름답다. 고니와 청둥오리, 검은머리물떼새 등 희귀한 종류의 철새들을 보기 위해 철새전망대도 세워져 있다.

11월 20일부터 100일간 금강철새탐조투어 열려

금강철새탐조투어는 연인과 함께 가면 아름다운 갈대밭을 배경으로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한다면 서천의 맛과 멋을, 자녀와 함께한다면 최고의 자연학습장인 금강철새도래지에서 생태탐방과 체험학습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사진으로만 보아 온 철새의 군무, 가을에서 겨울까지 우리나라에서 머무는 다양한 철새들의 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 찾아가는 길 : 서해안고속도로 서천C → 서천 → 신성리갈대밭 / 금강하구둑관광지
- ◎ 주변 볼거리 : 장항송림자연휴양림, 마량포구와 마량리 동백숲, 서천해양박물관

자료제공: 여행전문 웹진, 리에토(www.lieto.co.kr)